



나의 대나무숲 친구

복산초 5-4 이강준

나에겐 친구 한 명이 있다. 대나무숲 같은 친구 말이다.

어느 날, 그날은 내가 전학을 온 날이었다. 너무 어색하고 긴장되는 마음에 책상에 앉드려 있었는데 그때 “안녕”이라는 소리가 들렸다. 혹시나 하는 마음에 위를 올려다보니 한 친구가 날 쳐다보고 있었다. 나도 인사를 전한 뒤... 긴 시간이 흘러 하교 시간이 되었다. 나는 아무도 안 사는 1단지에 살기에 혹시나 1단지 사는 애가 있을까 한 명 한 명 조용한 말투로 묻고 있는데 어디서 “나도 1단지 사는데”라는 목소리가 들려서 누구인지 둘러보니 아까 나한테 말을 걸어준 그 친구였던 것이었다. 우린 그 계기로 우린 점점 친해져 갔고 둘도 없는 절친이 되었다.

그러던 어느 날, 그 애에게 처음으로 고민을 털어놓은 날이었다. 고민은 그저 사소한 고민이었기에 다른 친구들처럼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면서 들을 줄 알았는데, 그 친구는 끝까지 고개를 끄덕이며 열심히 들어주며 고민에 대해 오래 고민하며, 나한테 방안을 말해주었다. 그저 그렇게 넘어가도 될만한 고민을 끝까지 들어주며 공감해 주는 걸 보고 친구라는 존재의 소중함을 느꼈던 것 같다. 어떻게 보면 친구라는 건 언제나 나서고 도와주고 다 잘

할 수 있게 도와주는 존재가 아닌 그저 공감해 주며 내 모습 그대로를 존중해주는 존재가 진짜 친구가 아니겠는가? 말 못 할 진솔한 고민을 마음껏 털어놓을 수 있는 대나무숲 같은 사람이 된다는 게 정말 멋진 것이라고 난 생각한다. 공감할 때 공감해 주고, 울바르지 않을 때 바로 잡아주는 나의 친구에게 지금까지도 정말 고마움을 느끼고 있다. 친구는 내가 이상한 말을 해도 웃어주었고 사소한 고민, 슬픈 일을 이야기해 줄 때에도 끝까지 집중해 주었다. 나도 그 모습에 감명받았고, 그렇게 멋진 친구가 되어주고 싶다는 마음이 들었다.

그렇다면 혹시 당신은 대나무의 성장 과정을 알고 있는가? 대나무는 몇 년 동안 계속 나지 않고 커지지도 않아서 사람들이 포기할 때쯤 1m, 2m, 3m, 4m씩 쭉쭉 자라며 성장한다고 한다. 그런 사연을 갖고 있는 대나무들이 몇십 개, 몇백 개, 몇천 개가 모여서 대나무숲이 완성되듯이 우리들도 공감, 위로, 배려 이런 감정들이 모여 대나무숲처럼 편안한 친구가 된다고 생각한다. 그 감정들이 모이면 대나무숲이 되고 결국은 좋은 사람이 된다. 이 고마움을 담아서 이 글을 쓴다.

